



대만의 구제역 방역사업에서 얻은 교훈

1. 머리말

구제역은 거의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구제역이 한 번도 발병되지 않았거나 현재 비발생국으로 인정되는 지역은 북미, 중미,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등이었다. 특히, 1997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 제 65차 국제위원회 총회에서 국제동물위생 규약 제 2.1.1.장에 근거하여, 구제역 비발생국가 인정에 관하여 심오하게 검토된 바 있다.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비발생 국가로는 '96년도에는 한국 등 49개국이었으나, 대만 및 불가리아에서 최근에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97년도 구제역 비발생국가 목록에서 삭제되어 현재 비발생 공인국가는 한국 등 47개국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금년 3월 일본과 한국에서 동시에 구제역이 발생되어 비발생국수가 줄게 되었다.

2. 대만의 양돈시설 및 사육환경의 특징

대만의 양돈업은 국가 주요산업 가운데 하나로 부업형 사육이 아닌 기업화된 사육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당공사, 리타그룹, 통일 등 대규모 계열화 업체들도 있다. 또한, 남부의 병동, 운림, 대남, 고웅 4개현이 대만 양돈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유로 밀집사육이 특징이며, 아열대성 기후로 인해 개방식 돈사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3. 양돈이 점유하는 경제적 비중 (대내 및 대외)

대만의 양돈업의 연간 생산액은 약 32억 US\$로 쌀의 연간 생산액 약 20억 US\$를 훨씬 앞질러 대만 농업 생산품 가운데 수위이며, 이는 대만 농업 총생산의 21%를 차지한다. 1996년 한해 동안 도축된 돼지는 약



강 영 배

대한수의사회 학술홍보위원장

1,460만두로 지육 생산량 128만 3천톤 가운데 921톤이 국내 소비되었고, 약 28%인 36만2천톤은 수출하였으며, 일본으로 26만6,225톤(정육기준, 약18억 US\$)을 수출하여 일본 돼지고기 수입량의 약 40%를 점하였다. 대만의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42.9kg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소비량 15.3Kg의 약 3배이다.

우리 나라 전남북을 합친 정도의 크기인 35,759평방km의 국토에서 25,357개 양돈장을 통해 10,698,366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4. 구제역 최초 발생농장의 특징 (위치, 환경, 상거래, 사료공급 등)

가. 최초 발생농장

1997년 3월 대만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것으로 공식보고된 농장은 수도 대북에서 남쪽으로 30km 떨어진 신죽현의 중부 죽동진에 위치하는 모돈 30두 규모의 자돈 생산판매 전문농장으로, 부부가 경영하며 관리상태는 양호하며, 2월과 3월에 외부로부터 동물의 도입이 없었고,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분만사에는 1주일 전까지 외부인의 출입이 없었다. 농장 내

에 새끼는 자주 드나들며, 농장에서로부터 10km 서쪽에 위치한 어항은 농축산물의 밀수항으로 유명한 곳이라 한다.

나. 침입 경로

침입 경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다만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로를 꼽을 수 있다.

첫째로는 중국대륙에서 밀수된 동물 또는 축산물을 통해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대만은 현재 중국대륙으로부터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대만과 마주보고 있는 중국대륙의 복건성 등으로부터의 밀수가 계속되어 왔으며 특히 당년 2월 6일 중국 최대명절인 춘절을 전후해서는 양안의 밀무역이 성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대만 양돈업자들의 중국 대륙내 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많은 수의 대만 양돈업자들이 본토에 투자하고 양국의 양돈장 등지를 빈번히 왕래하고 있어 이들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둘째로는 동남아시아의 구제역 오염지역으로부터의 바이러스 도입 및 전파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동남아시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

고 있으며, 특히 대만과 이웃해 있는 필리핀에서는 근래에 주로 돼지에서 구제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만과 동남아시아 국가간에는 교통수단 및 여객의 왕래가 빈번하고, 특히 최근에는 이 지역의 양돈업자들이 대만의 양돈장 시찰을 오는 경우도 많았었다고 한다.

따라서, 왕래하는 여객의 휴대육류 등 휴대품, 신발이나 의복, 항공기나 선박의 잔반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대만 영토내로 침입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각현의 가축질병방치소로부터 조사표를 집계하여 침입 경로를 조사중이나 정확한 경로를 밝히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

다. 전국적 전파 경로

최초 발생농가와 이후 발생농장과의 관련성 및 전파경로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대만 서부지역에서 남북으로 순식간에 전파된 이유로는 몇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최초 발생농장과 두번째 발생농장 주위에는 각각 50m, 200m 이내에 소규모 내수용 도축장이 있었으며 이곳에 들른 차량들이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 전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대만은 좁은 국토면적에 비



특 집

구제역 발생과 대처방안

해 많은 돼지를 밀집사육하고 있어, 바이러스의 농장간 전파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을 것이다.

또한, 대만 서부지역에는 남북으로 도로와 철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 마을이나 농장이 고속도로(고속도로)나 주요 간선도로로부터 가까이 있으며, 사람과 차량의 왕래가 빈번하고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4시간 정도밖에 안걸리는 점도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신속히 전파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구제역 발생초기에 강력히 대처하지 못하고 초동방역에 실패했기 때문에 전국토가 구제역 바이러스로 오염되고 말았다.

5. 살처분 정책과 예방접종 정책을 병행시킨 이유

가. 살처분과 예방접종을 병행시킨 이유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 국가들 대부분은 구제역 발생시 감염동물 및 방역대내의 모든 감수성 동물을 살처분하는 것을 국가 방역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1997년 3월 대만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경우, 초기에 가축방역 전문가, 국회의원, 학자들 사

이에서 살처분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방법과 전면적인 예방접종을 하고 살처분 두수를 줄이는 방법 등 두가지 의견으로 나뉘어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두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대만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빠른 전파속도를 고려하여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들은 모두 살처분하고 비발생농장의 돼지와 그의 감수성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방법이 채택되었다.

이때 논의된 두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첫째 전면적인 살처분 정책의 경우 구제역 바이러스를 확실하게 박멸하며 1년후에는 구제역 비발생국의 지위를 다시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돼지 1,100여만두를 비롯하여 모두 1,150만여두의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들이 파생되고, 축산물 수출시장을 모두 잃게됨은 물론 국내 축산물 자급시장이 붕괴되어 5만여 양돈농민과 70만여 관련산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축산물을 수입에 의존하여야 하는 등 치루어야 할 대가가 막대하다.

백신접종 정책을 채택할 경우, 구제역 비발생국의 지위를 다시 획득하기까지는 적어도 4~5년이 소요되겠지만 장점으

로는 국내 소비분인 연간 800만 두정도 규모의 시장과 양돈업을 유지할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국가에 대한 수출재개 모색 등을 들 수 있다.

나. 살처분

구제역 발생농장내 사육중인 돼지들은 발병의 유무 및 돼지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살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살처분 및 사체의 처리는 방역요원의 지시에 따른다.

사체 처리를 위해 위생서, 경정서, 환경보전서에 연락하고 군대에 사체운반 등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한다. 약물을 투여하거나 전기를 이용하여 도살하였다.

사체의 처분은 동물전염병 방지조례 시행령 세칙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농장내 혹은 농장소유 부지에서 소각하거나 매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각하는 경우 소각로를 이용하거나 화제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매몰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 소독을 확실히 해야하며 처리후 알립판을 세워야 한다.

사체처리 장소가 마땅하지 않을 경우 현시 가축질병방치소의 지시에 따라 화제처리하거나 외부로 운반하여 매몰 또는 소각하는 방법을 사용하였

다. 매몰장소로는 해당농장의 사유지 이외에 식수원과 떨어져 있는 정부 소유의 공유지를 이용하기도 하였으나, 매몰장소 주변에서는 악취 및 오수에 의한 식수의 오염, 주변지역 주민의 반대 등 환경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4월에 들어서는 처리두수가 적은 경우에는 소각도 실시하였지만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연기에 의한 환경문제 때문에 일부에서만 실시하였으며, 화제장은 전국에 9개소가 있어 전부 가동하면 8시간에 900 ton 처리가 가능하나 소재지 현의 허가가 필요하여 실질적으로 가동한 것은 대남현의 2개 뿐으로, 8시간에 100ton 처리가 가능하였다. 사체처리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름으로 인해 일부에서는 화장장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다. 백신 접종

대만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음을 공식발표한 다음날부터 감염농장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하였으나, 전파를 차단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고, 전파속도가 매우 빨라 양돈농가 밀집지역인 남부지방으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즉시 백신접종에 의한 방역을 실시하기로 결정하

였다.

1997년 3월 19일 대만성가축 위생시험소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혈청형을 O1 및 Asia1이라고 잠정 진단하여, 3월 21일에 보관 중이던 4만두의 구제역 예방백신 가운데 두혈청형의 혼합백신을 우선 사용하였고, 외국 제조회사에 200만두분을 주문하였다.

3월 25일 영국의 퍼브라이트 연구소의 검사 결과와 이후 대만성가축위생시험소의 재검토에 의해 대만 구제역의 혈청형은 O1뿐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백신주 가운데는 O1 Manisa와 항원성이 가장 유사한 것으로 밝혀져 O1 Manisa 단독백신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7월초까지 수입하여 사용한 백신은 2,100만두분이며 이 가운데 1,300만두분은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구입한 것이다.

백신주문후 대만에 도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3월과 4월초에는 백신의 수량이 부족하여 종돈, 소, 산양(乳用), 동물원의 사육동물에 우선적으로 접종하였으며, 백신이 충분히 확보된 후에는 비발생농장의 돼지들을 비롯하여 모든 감수성 동물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여, 현재는 전국적인 백신접종이 완료되었다.

6. 구제역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산내용 (무역 피해 등)

대만 행정원 경제부에서는 1997년 3월 22일 구제역이 대만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추산액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그 경제적 충격은 1996년 중국의 미사일 훈련에 의해 빚어졌던 본토와의 양안사태로 인한 것에 못지 않으며, 식육가공, 사료, 기구, 수송 등 관련산업 150여개에 미치는 손실을 모두 고려하면 최고 약 2,700억NT\$ (한화 약 8조원)이며 이는 경제성장률 1.4%의 감소를 의미한다. 대만 양돈산업의 연간 생산액은 890억NT\$이며, 이는 축산업 생산의 60%, 농축어업총생산의 20%를 차지한다. 또한, 양돈산업 직접종사자는 약 10여만명이며, 관련산업 종사자는 약 70만명이다.

구제역 발생에 따라 돼지고기를 수출하지 못함으로 인해 약 15억5천만 US\$의 손실을 입고, 국내 시장에서도 연간 약 500억NT\$의 피해를 입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었다.

구체적인 손실액은 대만 정부의 최종 보고서가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대만 정부 경제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양돈산



구제역 발생과 대처방안

특 집

업에서의 손실 1단위당 관련 150개 산업손실을 포함한 전체 적 경제손실은 3.4단위이며, 양돈산업 추정 피해액을 최대 800억NT\$로 보면 전체 산업 손실액은 2,700억NT\$에 이르게 된다. 참고적으로 구제역 발생에 따라 행정원 농업위원회 축목처 가축위생과에서 집행한 구제역 방역비용은 104억NT\$(한화 약 3,012억원)이다.

7. 구제역 발생전 원상 태로의 회복이 가능한 시 기 전망

대만 정부의 일일 구제역 발생집계에 의하면 1997년 6월 17일 이후 현재까지 새로운 발생은 없으며, 농업위원회 축목처에서는 이제 통제단계에 들어섰다고 매우 고무되어 있었다.

행정원 농업위원회 축목처 가축위생과장의 말에 의하면 1997년 3월초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대만 전역을 휩쓸었던 구제역이 전국적인 백신접종의 영향으로 6월부터는 수그러들기 시작하여 6월 17일 이후로는 새로운 발생사례가 없어 이제 통제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느낌이다.

대만 정부(행정원 농업위원회)는 향후 2년간 백신접종을 계속하면서 새로운 발생예가 없도록 하여 국제수역사무국

(OIE)으로부터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구제역 비발생국가로 인정받고, 그후로는 백신접종도 중단하고 1년 경과후 완전한 구제역 비발생국으로 인정받는다는 기본 계획을 갖고 있어 향후 최소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만양저과학연구소와 대만성 가축위생시험소의 진단 및 방역 전문가들은 완전한 회복까지는 향후 최소 4~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대만 정부에서는, 구제역에 감염되어 사육중인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농장들에 대해 6월부터 돼지의 재입식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입식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7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농장전체를 완전히 소독한 후 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에서는 양돈을 하는 것이 전보다 까다롭도록 몇가지 규정을 신설하여 당분간 대만내 돼지 사육두수가 국내 소비를 약간 웃도는 800~900만두로 유지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대만에서 구제역이 발생한후 일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축산 폐기물로 새로운 공해를 유발하고 있는 양돈산업을 개편하여 최소화하고 중국 본토로 이전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

하였다.

8. Mass-com (TV, 신문) 보도후 소비자의 반응과 부대현상

1997년 3월 20일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에서 구제역 발생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대만 내의 각 언론사들은 이 기사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입법원(국회)에서도 주요 안건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TV 화면 등을 통해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의 모습, 감염되어 폐사한 돼지의 모습 등이 소비자들에게 전해졌으며, 이를 본 소비자의 상당수가 돼지고기 소비를 기피하여 돼지고기 가격은 급격히 하락하였다.

또한, 초기에는 구제역의 사람으로의 전파 및 피해 여부 등이 논란이 되어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에서 돼지고기를 제외하기도 하였으며, 구제역 발생 공식발표후 수출국인 일본, 한국 등지로부터 대만산 돼지고기 반송조치가 내려지고 이러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이를 오해하여, 일본과 한국 소비자들도 안먹는 돼지고기를 왜 먹느냐고 소비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구제역 발생 초기의 언론보도의 홍수속에는 수출길이 막

한 돼지고기를 북한 등 기아에 시달리는 국가들에 지원하자는 소위 '저육외교' 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초기의 혼란 이후 정부에서 언론사들에게 살처분 장면 등 자극적인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보건부 관계자들이 사람에게는 피해가 없음을 홍보하고, 생산자 단체들이 돼지고기 소비 촉진 캠페인을 벌이고 이등휘 총통 등 많은 인사들이 참여하여 직접 돼지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려 노력하여 현재 농촌 지역에서는 과거의 소비수준을 회복하였으나, 도시 지역에서는 아직도 돼지고기 소비가 예년에 비해 줄어든 상태이다.

9. 맺는 말

대만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 모든 우제류 및 관련 축산물의 수출을 중단한 바 있으며, 일본은 수입을 중단하고 이미 수입된 돼지고기에 대한 회수 및 반송을 검토하였다.

우리 정부에서는, 1997년 3월 20일자로 대만산 우제류와 그 생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였으며, 구제역바이러스의 잠복기 14일과 구제역 안전감시기간 21일을 참고로 역산하여, 2월 17

일 이후 도축되어, 수입통관 중인 대만산 돼지고기 928톤을 반송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추가분을 포함하여 총 952톤을 모두 반송조치 하였다.

대만의 구제역 발생에 따라 일본의 돈육 내수시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대비하여, 이미, 미국은 자국내의 돈육생산량을 상당량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으며, 덴마크는 중국의 청명섬에 일본 및 한국에 대한 수출을 목표로하여 당시 총 300,000두 정도 규모의 양돈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도 있다.

가. 구제역 발생으로 대만 정부가 잃은 것과 얻은 것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대만정부는 잃은 것도 많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얻은 것도 적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우선 잃은 것을 살펴보면, 첫째, 대만의 농업 총생산의 21%를 차지하며 국가 수출산업을 주도해온 양돈산업의 붕괴를 들 수 있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돼지 사육 총두수 1천1백만두의 35%에 달하는 3백85만두 이상을 살처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둘째, 연간 약 6백만두를 수출하던 대일 돈육수출 시장을 포함하여, 동물

및 축산물의 국제교역상 지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는 점이며, 향후 양돈경기를 종전대로 회복하기 위하여는 4~5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셋째, 농업위원회 위원장(장관)을 포함하여 축목처장과 가축위생과장의 경질이라는 인사파동을 불러왔다. 넷째, 감염 돼지 살처분에 따른 환경오염(수자원 및 토양) 등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으며, 미감염 돼지의 예방접종이라는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 다섯째, 국민들의 돼지고기 소비 기피로 인한 건강 및 영양문제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 등이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반면에, 구제역 경험을 통하여 얻은 것으로는, 가축전염병 검역강화 및 밀수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 양축농가들의 차단방역 개념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었다는 점, 이번 기회에 해외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방지를 위한 제도정비 및 법령이 강화되었다는 점, 특히 구제역 발생 및 방제에 대한 산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 등이다.

나. 대만의 구제역 초동방역의 실패

대만의 구제역과 관련하여,



대만정부는 초동방역의 실패를 인정하고 있다.

초동방역의 실패요인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첫째, 구제역 예방약 비축분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평소에 연간 10만두분씩을 비축하던 물량을 '96년도에 4만두로 줄인 바 있으며, 그에 따라 초동방역시 백신의 심한 부족현상이 초래되었다. 둘째, 구제역 방역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살처분 정책과 예방접종 정책을 병행한 것은 기대효과 보다는 예산의 낭비요인으로 지적된다.

셋째, 초기 방역조치가 미흡하였다. 폐사축이 방치되는 것은 물론, 감염축이 시장에 유통되는 등, 확산차단을 위한 초기의 방역조치가 미흡하였다는 점이다. 넷째, 살처분 시설이 미비하였다. 적당한 매몰장소 확보가 어려웠으며, 소각시설 또한 부적합하여,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크게 지적된 바 있다. 다섯째, 구제역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에 대한 사전준비가 미흡하였으며, 대응연구 및 방역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방역기관의 신속한 진단 및 방역 조치가 부적절했으며, 교육홍보 등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지적된다. 여섯째, 중국 등으로부터 감염 돼지고기 밀수반입이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으나 강력한 조치가 미흡했었던 것으로 지적된다.

다. 대만의 구제역 방역조치 종합평가

대만정부가 취한 방역정책상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몇가지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초동방역에는 실패

대만정부가 취한 방역정책상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몇가지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초동방역에는 실패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전반적인 방역에는 성공한 사례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구제역이라는 악성 전염병 발생에 대하여 약 3개월이라는 단기간내에 국가방역 계획의 통제하에 완전장악할 수 있었던 사례는 전반적인 방역에는 성공한 것으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전반적인 방역에는 성공한 사례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구제역이라는 악성 전염병 발생에 대하여 약 3개월이라는 단기간내에 국가방역 계획의 통제하에 완전장악할 수 있었던 사례는 전반적인 방역에는 성공한 것으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여기에서 완전장악이라

함은 “박멸”을 뜻하는 바는 아니다.)

그 성공요인으로는, 첫째, 정부 부처간 협조를 통한 국가적 방역사업의 적극지원을 들 수 있다. 특히 국가보상비 특별예산, 사체처리 군지원 등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둘째, 강력한 방역정책의 지속적 시행으로, 구제역이라는 악성전염병에 대하여 최초발생 3개월만에 완전 통제단계에 진입하였다는 점이다. 향후 4~5년 경과후 양돈산업의 원상상태로의 회복이 기대된다.

셋째, 이번기회에 대만 양돈산업의 구조를 재조정할 수 있었으며, 향후 과밀화를 지양하고, 환경보전 농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며, 수출정책 재평가도 기대된다. 넷째, 구제역 뿐만아니라 기타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어 가축방역의 중요성이 재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가축전염병 방제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다. 양축농가들의 차단방역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해외 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제도 및 법령이 강화될 수 있었다.

향후 대만의 가축방역 정책은 축산농가는 물론 전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돈**